



東 · 亞 · 文 · 化 · 55

숨을 곳도 없는 실향민: 황석영 초기 소설 중 “귀속” 의미에 대한 연구

宋砚轩, 苑英奕

1. 서론
2. '귀속'의 사회적 및 문학적 개념
3.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귀속'
4. 고향 콤플렉스 속에 나타난 귀속
5. '귀속'의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의미
6. 결론

숨을 곳도 없는 실향민: 황석영 초기 소설 중 “귀속” 의미에 대한 연구

宋砚轩,* 苑英奕**

초록

황석영의 작품은 ‘한국사회의식의 교과서’로 불리며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 시기 밑바닥 민중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역사였다. 그는 극심한 민초 근성으로 민초들의 고단한 삶과 내면의 세계를 예리하게 바라보며 강렬한 재생 의식을 조명했다. 본고는 황석영의 초기소설 중 「삼포가는 길」, 「장사의 꿈」, 「돼지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Lefebvre의 공간이론을 운용하여, 소설중 귀속의미를 탐구했다. 본고에서는 소설 속의 ‘귀속’을 공간 이론적으로 세가지 방면으로 나누었다. 즉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중에서 나타나는 ‘귀속’, 고향 콤플렉스 속에 나타난 귀속, 귀속은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은유적인 의미를 통해 ‘귀속’이라는 ‘카테고리’를 분석하였다. 자아 정체성은 자아 가치를 실현 뿐만 아니라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외부적인 귀속에 속하다. 고향 콤플렉스는 귀속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내적인 귀속을 찾는 것이자. 그리고 여성상을 통해

* 大连外国语大学아시아아프리카언어문학 전공 대학원, 전공방향: 한국현대문학

** 大连外国语大学한국어대학 부교수, 전공방향: 비교문학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70년대 소설; 황석영; 실향민; 귀속; Lefebvre의 공간이론

1. 서론

2016년 8월 1일,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에 게재된 ‘北上广¹⁾’ 인구 증가 속도 둔화, 전문가들은 정책으로 저급한 인구를 제거한다고 말한다.’라는 문장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층민으로 돌리고 있다. 남경대학의 정범 교수는 그들을 ‘도시 이방인²⁾’이라 불렀다. 중한 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농업 사회가 산업 문명으로 향하는 사회적 전환기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은 당시의 작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층민의 생활상을 많이 묘사한 문학 작품이 등장했다. 산업화 시기에 국가 경제 정책 조정에 따라 이농민이라는 특수한 사회 군락이 출현하고, 이들은 농촌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와 현실의 모순은 이농민이 정체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귀속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사회적 관심의 초점과 문학 창작의 소재가 되어 귀향을 갈망하는 소설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황석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 대

-
- 1) 북경, 상해, 광주.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도시 3개. 이른바 중국의 1선도시라고도 한다.
 - 2) 도시 이방인(都市异乡人)이란 외지로부터 도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으로 농민공과 비슷한 뜻이다.

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성과가 있고, 특히 하층민의 생활 상태를 반영한 연구 및 현상에 의한 사회적 이데올로기 연구를 반영하고 있다.

송소문은 「산업화 시기 한중 소설의 사회적 인식 비교 연구」에서 贾平凹의 「기쁨(高兴)」과 황석영의 「객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산업화 시기에 인민들의 생존 상태와 사회 심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황석영 소설 속 도시 하층민 이미지 연구 - 1970년대 단편 소설 중심으로」에서 등장한 인물들은 황석영의 단편 소설 속 인물의 모습을 분석해 산업화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하층민의 삶을 분석한 것이다.³⁾

申永镐는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이농민을 소재로 한 소설」을 통해서 산업화 시대 향촌과 도시 현황의 차이에 따라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간 후 비참한 생활 현실을 탐색하였다.⁴⁾

본고에서는 황석영의 초기 작품 「삼포 가는 길」, 「장사의 꿈」, 「돼지꿈」을 대상으로 하였 기존 연구자들의 이론에 기초한 ‘귀속’이론과 Lefebvre의 공간이론을 결합해 산업화 시대 밑바닥 민중의 심리 상태와 깊은 감정을 파고들어 가는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한다.

2. ‘귀속’의 사회적 및 문학적 개념

한국의 근대화 혹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를 1960년대 이후로 보는 견해에는 특별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산업

-
- 3) 高思雨. 2016. 黄哲暎小说中都市底层人物形象研究—以1970年代中短篇小说为中心[D]. 哈尔滨: 黑龙江大学.
- 4) 申永镐. 浅析韩国产业化时期离农农民题材小说[J]. 天津外国语大学学报, 2016(2): 56-60.

화로 인하여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고 도시 변두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황석영의 소설에서는 사회발전상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농민 소설의 발전양상은 꼭 그 시대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산업화 시기, 이농민들이 도시에 힘겹고 가난한 생활상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귀속’의 사전의 정의는 ‘개인이 어떤 조직이나 지역 혹은 집단에 속한다’이다. 품사는 성질은 동사이다. 품천은 귀속이 어느 정도에서 보면 사회 통합과 같다고 생각한다.⁵⁾

이농민 개인 측에게는 귀속이 이농민들 자신과 다른 사물의 공통된 특징을 변별함으로써 자기의 동류를 찾아내는데 자신만의 특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⁶⁾ 한국의 산업화시기에 사회가 격변했는데 이농민들은 적응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예전의 농촌의 사유방식만으로 도시 생활에 신속하게 융합되어 들어갈 수 없어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즉 귀속감을 찾을 수 없다. 미국의 Maslow 는 그의 「自我实现的人」에서 사람의 요구를 생리적 요구, 안전적 요구, 귀속과 사랑의 요구, 존중적 요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요구 5가지로 나누었다. 그런데 생리적 요구와 안전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면 한층 더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필요로 한다. 곧 귀속과 사랑의 요구이다.⁷⁾

일반적으로 귀속감은 문화 심리의 개념인데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현상에 대한 공감할 정도이고 그 현상과 관련된 밀접한 정도를 뜻한다. 대상에 따라 귀속감의 차원도 다르다. 심리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구나 고독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어떤 단체이나 협회에 가입하고자 함으로 그 속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얻고 외로움을 해소한다. 「삼포 가는 길」에서

5) 冯倩. 隐形因子对农民工归属感影响的实证研究[J]. 农业经济问题, 2016(1): 53-61.

6) 才国伟. 2011. 农民工的城市归属感与定居决策[J]. 经济管理, (2): 158-168.

7) 马斯洛. 2002. 许金生、刘锋译. 自我实现的人[M]. 北京: 三联书店.

좌절로 침울한 주인공들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만나고 상호간의 관계가 견제에서 신뢰로 전환하고 갈라놓을 수 없는 전체가 된다. 집단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유대감을 갖고 우정과 지지를 얻고 그들 간의 상호 작용을 하며 행동이 조율된 것인데 구성원들 모두가 한 집단에 속하다는 걸 느꼈으므로 집단 구성원들이 일치 단결할 때에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특히 집단이 공격을 받거나 영예를 얻을 때에는 구성원들이 더욱 똘똘 뭉치게 된다. 귀속감이 있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책임감이 있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책임감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면 어떤 사물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게 된다.

Henri Lefebvre의 공간이론은 모든 종류의 사회가 자기의 사회 공간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관계는 일종의 구체적인 공간이고 그것들은 자신을 공간에 투사하여, 마침내 그와 어울리는 사회 공간을 구축하였다.⁸⁾ 공간은 주인공이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공간은 실천 활동의 장이자 실천의 산물이다.⁹⁾ 한국은 1970년대에 농업을 희생하여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공간을 만들었다. 한국의 산업화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도시 이외의 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채 도시 공업생산의 부속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촌에 삶의 근거를 두었던 다수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일용노동자로 전락하고 도시 변두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도시인구는 이농민들에 비해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 기술, 지식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우월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농민들이 압박당할 처지에 처해지는 것은 당

8) 潘可礼. 2015. 亨利·列斐伏尔的社会空间理论[J]. 南京师大学报, (1): 13-20.

9) 钱俊希. 2013. 后结构主义语境下的社会理论: 马歇尔·福柯与亨利·列斐伏尔[J]. 人文地理, (2): 45-52.

연하다고 생각된다. 궁극적으로 도시인의 우월적 지위와 이농민의 억압된 형편이 산업화 정책이 시작됨에 따라 농업이 해체 됨의 조건하에 이농민들은 점점 미망 상태에 빠졌다. 이농민들은 산업화 정책하의 사회적 공간에서 자본과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육체 노동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데 최대의 잉여 가치를 착취하려면 반드시 육체와 정신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심경의 통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농민을 막다른 길에 이르게 하고 마음 속에 이데올로기를 심고 이념적으로 개입하여, 심리적 공간에서 이농민을 조종한다. 혼돈의 심리가 모든 감정을 다 차지함으로써 이농민들은 완전한 자기 심리적 공간을 형성할 수 없게 되어서 단순히 삶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다.

산업화 운동이 구축된 사회적 공간에 의한 이농민의 미망인 심리와 고향을 박탈당한 후에 귀속되지 않는 심리 등 심리적인 의식이 이농민들의 심리적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이농민들은 자신들의 완전한 심리 공간을 생산하지 않고, 단지 값싼 노동력으로 산업화에 묶여 있다. 값싼 노동력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목적이다. 사회적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산업화 정책 아래서 국가가 이농민의 이익을 갉아먹는 주요 수단의 하나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심리적인 공간의 생산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방식과 언어로 개관적인 세계에 투영된다. 독자들은 언어를 통해 표층에 숨어 있는 자아의 의식을 알게 된다. 「삼포 가는 길」에서 오래동안 유랑한 영달은 생활에 대해 무감각하게 느끼고 삼포가 도시로 변모하는 것을 듣고 여전히 기뻐했다. ‘잘됐군.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¹⁰⁾ 도시 생활은 그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 능력을 잃고 완전한 자기 심리적 공간이 없

10) 황석영. 苑英奕译. 客地-黄皙暎中短篇小说选[M].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9: 23.

어서 결국 자기 정체성도 잃게 되었다.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기존의 생존공간에서 방황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뚫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농민은 도시에 살았지만 도시에 속하지 않고 융화되지 못하여 귀속감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인공들은 긴 길에서 ‘고향’을 찾는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건강한 생명력’을 찾아, 빈곤한 삶과 맞서 살아가며 ‘삶의 즐거움’을 찾고, 실제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귀속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3.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귀속’

황석영의 소설에서 주인공의 캐릭터는 대부분 하층 남성이어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주인공 캐릭터의 다른 선택은 작가의 글쓰기 수요에 달려 있다.

남성은 사회적 발언권과 다중적 신분을 지니고 사회적 모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의 주체이자 공동체 갈등의 주체이기도 하다. 황석영은 하층 남성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1970년대 혹독한 사회 생활상을 반영해 하층민의 공통성과 은유적 의미를 표현한다. 황석영은 3편의 소설에서 산업화 시기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 주며 한국 하층민들의 지위가 급속히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고독감과 외로움을 낳는 상황을 보여 준다. 하층 남성은 생산 활동의 주력군이자 착취의 대상이 되었으며 틈바구니에 끼여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남성의 이미지는 생활 속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산업화 시대의 특수층의 생활상을 표현하였다.

사회 공간은 소설에서 국가가 이농민을 착취하는 주요 수단 중의 하

나이며, 이농민은 산업화를 추진하는 주력군이지만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빈곤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와 이농민은 착취 관계로 이농민을 억압하는 사회 공간을 형성하였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사회 계급과 기타 집단의 경계, 그리고 그간의 사회적 권력 관계가 이 과정을 거쳐 사회 공간 안으로 스며들면서 공간을 통해 다시 기형적인 사회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¹¹⁾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 공간을 정치적으로 착취한다. 자본의 정체성은 잉여 가치를 좇고 잉여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공간의 장벽을 뚫어야 한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공간을 점거하고 생산하는 것이다. 공간 사이의 고유한 장벽은 자본의 유동성 때문에 붕괴되고 ‘중심-끝’, ‘도시-농촌’이라는 공간 이원화가 되어 있다.¹²⁾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사회 공간은 이익을 쟁탈하는 장소이다. 이런 배경 아래서 농민들은 억압 받는 사회의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돼지꿈」에서 江氏妻子처럼 어려움을 겪은 여인은 미순이 돌아온 후에도 절망감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생활 방식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들이 손가락으로 바퀴 준 손해 배상금으로 딸의 결혼 문제를 해결한 뒤 江氏妻子의 고민이 풀리고 오히려 아들이 사고를 낸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변두리 생활에 대한 객관적 묘사는 하층민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억압 받는 사회 공간이 인간기형적인 심리를 심어 주는데 육신의 고통을 받더라도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한다. 이농민의 사회적 공간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이루지 못

11) 王戈璇. 2009. 列斐伏尔与福柯在空间维度的思想对话[J]. 文学理论, 352-363.

12) 钱俊希. 2013. 后结构主义语境下的社会理论: 马歇尔·福柯与亨利·列斐伏尔[J]. 人文地理, (2): 45-52.

하도록 하므로써 심리적 공간을 통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농촌 사람들은 유동 인구 규모가 커지면서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전통적인 시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평가가 필요하다.¹³⁾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공간과 집단의 기억의 교류로 인해 유동 인구가 자아 신분 정체성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확실성과 자기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¹⁴⁾ 「장사의 꿈」에서 바닷가에 장사꾼의 집에서 태어난 일봉이 어부의 일을 이어 받지 않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산으로 옮겨 왔다. 그때 그는 씨름 경기에 참가하여 승리를 획득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런 날에 나는 영광의 장사로 뽐히곤 했어.장사의 곁에는 콧김 세고 뿔도 늪름한 황소가 들러리를 서거든.나를 에워싸를 들판에까지 쫓아오는 동네 꼬마들의 기나긴 행렬.나는 실로 장가드는 기분이었단니까.’¹⁵⁾

일봉은 승리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긍정을 얻었다. 농촌처럼 폐쇄적인 환경에서 주인공의 물질과 정신적인 면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치도 인정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봉은 시내에 들어와서는 때밀이로 전작하여 꿈과 현실의 차이가 자주 까닭없이 울게 하였다.

‘잔치의 함성과 자랑스러운 승리와 늪름한 황소를 끌고 가던 지난 날의 영광은 모두 육탕의 비누거품속에 사라진 것 같았지.아니 어쩌면

13) 刘传江. 2006. 中国农民工市民化研究[J]. 理论月刊, (10): 7-14.

14) 王春光. 新生代农村流动人口的社会认同与城乡融合的关系[J]. 社会学研究, 2001(3): 63-76.

15) 황석영, 위의 책, p.82.

읍내를 떠나던 날,그런 것들은 안개속에 없어졌을지두 몰라.¹⁶⁾

일봉은 농촌 생활에 적응하였으나, 도시와 농촌 간의 거대한 차이가 그의 사회적 공간의 부족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도시에서 중요시되지 않고, 필요 없는 사회적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작가는 일봉을 포르노영화 배우로 만든 뒤 두 번씩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처음에는 그가 영화를 찍을 때 늘 사람들을 노려보곤 하며 두 번째는 애자와 함께 살면서 이미 잃어버린 건강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개의 시선은 사회적 공간이 경험한 세계의 반응인데 일봉은 농촌에 있을 때 각광 받고 숭배받는 상태에 처해 있지만 도시 공간의 부재로 인해 일봉은 재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다.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삭막함이 자신의 정체성과 도시적 공간의 부조화, 그리고 주인공은 도시에 속하지 못하는 귀속감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농민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도시에 들어오지만 여전히 육체 노동의 종사하며, 하층에서의 인적 왕래는 예전의 생활을 초월하지 않고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로서 정체성에 대한 미망을 떨춘 채 당황하여 살아간다.

귀속감은 일종의 고급스런 심리 상태로서 기본적인 물질적인 보장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¹⁷⁾ 한국 하층민의 귀속감인 추구는 소설 속에서 개인의 가체에 대한 추구를 표현하고 있다. 일봉은 조상들을 모시고 사는 어부의 삶을 숭배하지만 어머니의 염려로 산으로 이사하면서 생활한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씨름, 트럭 운전자, 포

16) 황석영,위의 책, p.85.

17) 吴小勇等. 身份凸显性: 启动我的开关[J]. 北京心理科学进展, 2011(5): 712.

로노 영화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 사람들이 귀속감이 있을 때 자아의 존재감도 약화되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거나 타인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주체가 외래의 사물을 찾아 자기 정체성을 증면할 필요가 있다. 소설에서 건강한 생명력, 건강한 신체가 그의 정체성을 매개체로 건강을 되찾아 귀속감을 얻었으며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 하층민의 강렬한 의식을 보여 준다. 동시에 황석영의 물질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었다.

4. 고향 콤플렉스 속에 나타난 귀속

‘고향’이란 태어났거나 오랜 기간 거주한 곳을 일컫는다.

동서고금의 문학 작품 중 고향에 대한 추구는 결코 멈춘 적이 없으며 중국 문화 전반에 걸쳐 ‘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望阙云遮眼，思乡雨滴心’，‘白日放歌须纵酒，青春作伴好还乡’，‘故乡今夜思千里，愁鬓明朝有一年’등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는 허다하다.

그리고 「사기 고조본기」 중에 ‘大风起兮云飞扬，威加海内兮归故乡’ 등의 시구는 모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 신분이든, 타향에 거류하거나 명절을 맞으면,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샘솟는다. 고향은 원래 정의의 기초 위에서 더 많은 은유적 의미를 지닌다. 苏奎는 ‘오늘날 ‘도시 외래인’ 소설은 인물의 운명에 관한 한 두가지 서술의 틀을 짜서 저항하거나 귀향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¹⁸⁾ 사회 제도의 격변 속에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인데 도시에서 실패한 이

18) 苏奎. 论中国现代文学中的“城市外来者”[J]. 文艺争鸣, 2007(1): 84-89.

농민들이 고향에 대한 추억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출인 뿐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고향을 동경하는 것은 현실이 가혹하기 때문이다.¹⁹⁾

농촌은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다. Lefebvre는 물리공간이 구체화되고 생산성이 있는 공간으로서 생산과 재생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구축하여 이농민의 존엄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Pierre Bourdieu는 어디서나 공간이 구분되는 모델이라고 여긴다.²⁰⁾ 이러한 모델은 고향이 이농민의 마음 속에 있는 특별한 지위를 활귀하였다. 이런 공간이 구분되는 모델은 실질적으로 사회 계층이 주거 공간에 나누어 주는 반영이다.²¹⁾ 도시의 압박 공간에 비하면, 고향은 농민의 천연적인 안식처인데 이농민은 이곳에서 육체와 정신적인 이중 억압을 피한다. 황석영의 소설에서 고향은 주인공들에게 도시의 기형적인 사회 공간을 차단시키는 동시에 마음의 이상향을 만들어준다. 황석영은 조선에 불법으로 방북한 것과 독일에 망명한 경험이 있어 ‘이방인’으로서의 경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적인 신분으로 관찰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극히 객관적인 서술로 귀속감에 대하여 미흡한 감정을 전달하였다.

산업화 시기에 있어서 귀향하는 것은 이농민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식과 기술이 없어 삶의 터전에서 존중을 얻기 어렵다.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농민은 시골생활이 그리워 고향에서 마음의 위안을

19) 莫险锋等. 从“根”性内涵看打工文学的情感底蕴[J]. 中小企业管理与科技旬刊, 2014(9): 176-177.

20) 潘可礼. 社会空间论[M]. 北京: 中央编译出版社, 2013: 234.

21) 王玲慧、万勇. 居住分异现象及其对策[J]. 住宅科技, 1998(5): 11-14.

언려고 한다. 따라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 된다.

「삼포 가는 길」에서 작가는 주인공은 정씨의 체모 특징을 영달을 통해 ‘낮이 익은 서른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논어」에는 ‘30세는 이렵, 40세는 불혹’이라는 글귀가 서겨져 있어 서른살이 되면 사업이 발전하는 상승기인데 정씨가 백화의 말을 듣고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짜지면 고해 아닌가?’이라는 말과 영달이 옥자에 대한 기억을 듣고 묵묵 부답하여 ‘웬지 모르게 울었던 날도 있었던 말야.’라는 말을 배뺐었어 이런 나이에 걸맞지 않은 인생의 깨달음 속에서도 정씨의 고난을 느낄 수 있다. 소설은 그의 인식이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산업화 시기 하층민의 고통을 드러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결국 익숙해진 낮익은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한편 몇년간 돌아가지 않아도 고향 풍경을 ‘웬지 모르게 울었던 날도 있었던 말야.’이라고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다. 한편, 삼포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는 엉뚱하게 턱으로 남쪽을 향해 귀뿔을 해 줬다. 지금의 삼포는 그에게 생소하다. 그러나 그런 성숙한 방랑생활 속에서 삼포를 그리워하며 추억으로만 돌아오는 그의 몸에서 귀향 본능을 엿볼 수 있다. 도시의 번영은 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로 나아가고 범상치 않은 인간의 집착을 보여 주었다.

영달은 정씨보다 순수한 떠돌이이다. 정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그는 방랑하는 길이었고 삼포는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단지 길에서 만난 동료에 불과하다. 소설에는 영달의 고향을 알리지 않았지만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의 복귀 심리가 뚜렷하지 않아서 다만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뿐이다. 이 겨울에 실직한 영달은 주인과 불륜으로 허둥대며 도망쳤다. 돈이 없어서 애자와 헤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지 못해 정체성을 얻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정씨를 따라 돌아갔다. 억눌린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현상에 싫증이 나면서 동시에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서 이에 따라 생활과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다. 기존의 생존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을 검증하지? 않고 외곽 공간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한다.

‘이거 왜 이래? 나 백화는 이래봬두 인천 노랑집에다, 대구 자갈마당, 포항 중앙대학, 진해 칠수, 모두 겪은 년이라구. 조용히 시골 읍에서 수양하던 참인데…… 여아, 내 배 위로 남자들 사단 병력이 지나갔어.국으루 가만 있다가 조용한 데 가서 한코 달라면 몰라두 치사하게 똥보 돈 먹자구 나한테 공갈 때리면 너 죽구 나 죽는 거야.’²²⁾

농민 출신의 백화는 어릴 때부터 술집에 속아 끌려가 능구렁이 같은 창녀가 되었어, 23살이지만 대략 서른살쯤 된 나이에 더 늙어 보이는데 변화된 도시 생활이 결코 그녀에게 원하는 생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고향은 그녀에게 일종의 현실적인 해방을 의미한다. 그녀는 초가집에서 ‘나 이름이 백화지만, 가명이에요. 본명은……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아.’라고 말하며 헤어질 때 또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본명이 이 점레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백화이란 이름은 과거 삶의 상징이자 본명은 기녀의 신분에서 벗어나 참된 얼굴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화의 도피 행각은 하층 여성이 산업화에 대한 저항의 수단 중의 하나이다.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지만 사랑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백화도 결국 ‘화류계의 사랑이란 돈 넣고 돈 먹기 외에도 모두 사기라는 것이다.’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22) 황석영, 위의 책, p14.

도시 생활에 싫증이 난 이농민들은 마음을 달래는 향구적인 안식처? 를 갈망하고 있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고향이다. ‘고향’은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농민들에게는 도시에 비해 이상적인 공간이다.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귀속감을 고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귀속’의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의미

황석영 초기의 소설은 여성상에 대한 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스토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소설 중의 여성들은 대체로 운명이 비극적이며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이다. 소동은 ‘여성들은 아름답고 제일 싼 기생이라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황석영 초기 소설 중의 여성 이미지는 항상 ‘비극’이라는 단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여성의 귀속이 결국 비극적 운명임을 예고하는 듯이다.

많은 문학 작품에서 여성상은 포용성, 유약, 건강이라는 특질 외에 모성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의 귀속을 찾는 것을 상징하다. 곤경에 처할 때, 사람들은 포용하고 인정을 받기를 바란다. 백화와 옥자가 방황했는데 연달에게 중요한 것과 애자가 도시에 버려지는 일봉에게도 중요한 것처럼 여성상은 모성애를 상징하고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이해와 위안을 얻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산업화 시대의 하층 여성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신의 연약한 지위때문에 귀속감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다. 남녀 주인공들이 하층 민중간의 동류의식을 통해 공존하는 것은 서로에게 귀속감을 찾기 위해서 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결국 남성을 꺾는 것은 귀속을 찾는 데 실패했음을 뜻한다.

「삼포 가는 길」에서 백화는 안주인에게 단지 가치가 있는 기생이지만

그녀에게서는 여전히 가장 청순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백화에게 육체는 살아가는 도구였지만 그녀는 술집에 있을 때 죄수를 정성들여 간호했는데 타인에게 관심을 베풀어 줌으로써 귀속감을 얻다. 또한 남녀 주인공이 함께 귀가하고 도중에 백화가 남자 주인공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됐다. 헌신적이든 도움이든 여성상이 귀속감을 찾는 방식이다.

‘아뇨,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한 사날두 시골 생활 못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던 안으루 인정이 획 변해가는 판인데……’²³⁾

백화의 실패는 남자 주인공의 실패를 예고한다.

마찬가지로 「장사의 꿈」에서 일봉은 포르노 영화의 여주인공인 애자를 사랑하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연기를 하기 위해 배우로서의 직업을 포기했다. 애자와 만나는 것은 일봉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사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고 상대방에게서 귀속감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애자가 유산된 후 두 사람은 일정 기간을 헤어져 돈을 벌면 다시 만나기로 결정하였다. 사랑에서 느끼는 귀속감은 사랑에서 다시 사라졌다. 일봉이 현실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애자의 떠나간 것은 일봉이 귀속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 그는 몸을 팔아 매춘부로 전락했다.

23) 황석영, 위의 책, p. 22.

6. 결론

1960년대 시작된 산업화 운동은 한국사회 하층의 특수한 사회 계층인 이농만을 낳았다. 사회 경제 정책의 변혁 시대를 맞아 농민들은 농촌(또한 어촌)을 떠나 도시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농민들이 적응기간이 없어서 빠르게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농민은 산업화 운동의 노동력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존경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심리와 현실의 모순으로 이농민들은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귀속감도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전원산야를 향하고 귀향을 갈망하는 ‘귀향’을 주제로 하는 문학 작품이 성행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황석영은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심령의 고향을 구축하고 이농민들의 생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삼포 가는 길」, 「장사의 꿈」, 「돼지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중에서 나타나는 ‘귀속’, 고향 콤플렉스 속에 나타난 귀속, 귀속은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은유적인 의미라는 3부분에서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귀속감을 찾는 행위를 통해 ‘귀속감’은 이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임을 알 수 있다. 이농민들은 도시에 들어간 후 새로운 지리적 고향이 있지만 정신적 고향을 잃어졌다. 이 둘이 공존하는 것만으로 이농민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업화 운동이 구축된 억압적인 사회공간으로 인해 이농민들의 심리공간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게다가 고향이 파괴되고 있는 마음이 이농민들의 심리적 공간을 잠식하고 있어서 이들은 값 싼 노동력으로 산업화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본래

의 공간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데 기존 공간을 뚫고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자아 정체성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황석영 초기 소설 중의 주인공들은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도시에서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농민들은 익숙한 농촌으로 눈을 돌렸다. 이 농민들에게 고향은 도시에 비해 이상적인 공간이다.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속감은 고향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귀속이기 때문에 여성이 귀속을 찾는 데 실패한 것도 산업화 배경에서 이농민들의 숨을 곳도 없는 참혹한 현실을 상징하다.

황석영은 한국의 1960년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그 시대 하층 민중의 삶을 실감나게 그렸다. 황석영 본인의 생애 및 그의 작품은 한국 역사의 표본이다.²⁴⁾ 따라서 소설 중의 인물의 귀속 행위를 분석하는 것은 당시 사회 문제를 어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황석영은 휴머니즘 정신으로 하층 민중의 생존 상황을 심각하게 묘사했다. 역사적으로 현실을 모살피고 중국의 새로운 시대에 존재하는 이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참고를 제공해 주다.

참고 문헌

- [1] 陈刚华. 2007. 韩国和中国离农现象比较研究[D]. 韩国: 釜山大学.
- [2] 才国伟. 2011. 农民工的城市归属感与定居决策[J]. 经济管理, (2): 158-168.
- [3] 曹中屏、张琏瑰. 2005. 当代韩国史: 1945-2000[M]. 天津: 南开大学出版社.
- [4] 戴维·波谱诺. 1988. 社会学[M]. 沈阳: 辽宁人民出版社.

24) 金正日. 2011. 黄皙暎社会问题小说的变化样态研究[D]. 北京: 中央民族大学.

- [5] 冯倩. 隐形因子对农民工归属感影响的实证研究[J]. 农业经济问题, 2016(1): 53-61.
- [6] 黄皙暎. 2009. 苑英奕译. 客地 - 黄皙暎中短篇小说选[M].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 [7] 金正日. 2011. 黄皙暎社会问题小说的变化样态研究[D].北京: 中央民族大学.
- [8] 刘传江. 2006. 中国农民工市民化研究[J]. 理论月刊, (10): 7-14.
- [9] 李银实. 2011. 黄皙暎初期小说的主题学研究[D]. 延边: 延边大学.
- [10] 陆学艺. 当代中国社会阶层的分化与流[N]. 北京日报. 2006-06-19.
- [11] 马斯洛. 2002. 许金生、刘锋译. 自我实现的人[M]. 北京: 三联书店.
- [12] 莫险锋等. 从“根”性内涵看打工文学的情感底蕴[J]. 中小企业管理与科技旬刊, 2014(9): 176-177.
- [13] 潘可礼. 2015. 亨利·列斐伏尔的社会空间理论[J]. 南京师大学报, (1): 13-20.
- [14] 钱俊希. 2013. 后结构主义语境下的社会理论: 马歇尔·福柯与亨利·列斐伏尔[J]. 人文地理, (2):45-52.
- [15] 王春光. 新生代农村流动人口的社会认同与城乡融合的关系[J]. 社会学研究, 2001(3): 63-76.
- [16] 王戈璇. 2009. 列斐伏尔与福柯在空间维度的思想对话[J]. 文学理论, 352-363.
- [17] 苏奎. 论中国现代文学中的“城市外来者”[J]. 文艺争鸣, 2007(1): 84-89.
- [18] 吴小勇等. 身份凸显性: 启动我的开关[J]. 北京心理科学进展, 2011(5): 712.
- [19] 王梅. 2015 .产业化时期韩中小说人物形象比较研究-以黄皙暎和陈应松作品为中心[D]. 山东: 山东大学.
- [20] 宋小雯. 2010. 产业化时期中韩农民小说反映的社会意识比较研究[D]. 青岛: 中国海洋大学.
- [21] 高姝君. 2013. 韩国城市化历程极其经验分析[D]. 兰州: 兰州大学.
- [22] 樊瑛华、李秀珍. 中国新农村建设与韩国新村运动的比较研究[J]. 人文杂志, 2008(3): 92-95.
- [23] 高思雨. 2016. 黄皙暎小说中都市底层人物形象研究—以1970年代中短篇小说为中心[D]. 哈尔滨: 黑龙江大学.
- [24] 申永镐. 浅析韩国产业化时期离农农民题材小说[J]. 天津外国语大学学报,

2016(2): 56-60.

[25] 潘可礼, 2013. 社会空间论[M]. 北京: 中央编译出版社.

[26] 王玲慧、万勇. 居住分异现象及其对策[J]. 住宅科技, 1998(5): 11-14.